

믿음학습을 끝내면서

믿음학습은 작년 11월에 몇몇 집사들이 학원선교를 걱정하는 가운데 뭔가 우리의 미력이나 은사를 나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면서 기도 가운데 중등1부의 시범 프로젝트로 방학기간 동안에 (12/15~2/23: 10주) 중등부를 대상으로 교회 안팎에서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과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7명으로 국어(논술), 영어, 수학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금요일만 휴강) 실시하였다.

믿음 학습이 끝난 지난 2/24(주일날) 중등1부 학부모 간담회(100인 이상 참석)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감사가 있었다.

왜 진작 이런 프로그램을 알리지 않았느냐, 우리 아이는 믿음 학습을 하고 난 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교회 활

동에 적극적으로 변했다, 학업에 자신감을 가졌다, 기존 사교육을 끊었다, 개학 후에도 계속 해 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당초에 사전 홍보가 미흡하여 소수의 학생으로 시작 했지만 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매우 컸다.

물론 이 학습에 강사로 참여한 집사님들도 큰 은혜가 되었다,

오히려 가치있는 시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행복하게 했다.

금번 중등1부에서 시범 실시한 믿음학습을 통해 우리는 답보 상태(학원 선교의 한계) 1)중.고등 교육 평준화 정책 2)대학입시에 내신제 적용 3)상급학교 진학을 우선하는 교육 체제 4)특정 종교 CR활동 불가)에 놓인 한국 학원 선교의 대안으로 현실적인 시대적 필요를 반영한 새로운 선교 모델로써 지속적

로 개선 발전 시켜 나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향후에는 방학기간 뿐만 아니라, 개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회가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균형을 바르게 하고, 실력 지상주의 및 출세 제일주의자가 아니라 이웃과 민족을 걱정하고 세계를 품는 기도하는 후진들을 양육 할 수 있도록 주님의교회에 잠재하고 있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적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그 학부모 간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맺어 갈 수 있는 실천하는 지역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믿음 학습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 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와 격려를 주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박헌욱집사 (2-9)

봉화영수원 중보기도팀 수련회

“주님의교회에는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②



곧이어 98세의 방지일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단장을 짊고 안목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지극히 평온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들어오신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원로목사님께 존경과 경탄의 예를 올렸다. 첫 번째 말씀선포 “피흘려 주신 옷” (창 3:21)을 통하여 하나님은 에덴에서 광야로 쫓겨나야 할 아담과 이브를 가련하게 여기시고, 나뭇잎이나 열매를 따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흘려 가죽 옷을 만들어 갈아입혀주셨으니, 나뭇잎 같은 기도를 삼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명이 용솟음치는 피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당부하신다. 두 번째 “피의 길” (창 4:4)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형제가, 부모가, 동서가 어디 있느냐”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에도 대기에도 우주에도 전파처럼 흐르고 있으니, 그 음성을 들으며 기도를 어깨에 메고 중보기도자로서 바른 예배, 바른 기도사역의 피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선포다. 세 번째

말씀 “핏소리” (창 4:10)는 십자가에 달린 채 “죄인은 다 내게로 오라”고 호소하시던 주님의 핏소리를 들으며 회개로 정결해진 심령이 되어, 하늘나라를 보고 나와 이웃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선포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 이어서, 기도의 단을 쌓아올리면 현미경의 도수처럼 기도가 업그레이드되어, 태산 같은 죄도 낱알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말씀 “피의 표적” (출 4:4)은 유월절의 흠없는 어린양의 피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표적을 선명하게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를 물음으로 던지는 과제였다. 이상의 『피의 복음』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나와 나의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도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목사님은 성경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말씀 달라고 자꾸 간구하기 보다는 성경에 자신을 박고 살다보면, 바울처럼 내가 주를 알고 나를 보니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겸손해진 마음으로 자신을 버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신다.

노목사님은 수련회 동안 주님을 의지하듯 강대상에 의지하고, 그러나 허리가 곧은 자세로 두 시간여

줄곧 서서 말씀을 선포하신다.

아침 6시면 벅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계신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날 저녁에 백석대학 집회를 인도하신다는 것과, 다음 주에는 캐나다로 길을 떠나신다는 사실이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는, 받은 말씀 따라 피흘려 만드신 옷을 입고, 피의 길을 가면서, 핏소리를 듣고 전하는 중계자로서, 선명한 피의 표적을 드러내는 피의 사명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을 하면서, 20주년을 맞은 주님의교회와, 수요일 ‘12단계 성경교육’을 시작하시는 박원호 담임목사님과, 7월까지 매주 목요일 열리는 중보기도 세미나 ‘기도전수’, 그리고 중보기도팀원으로서 핏소리의 중계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금식 릴레이기도 일정표’를 짜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기도제목과, 기도의 용사들인 각 팀장은 이미 1월부터 준비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돌아와서야 알게 되었다. 이러한 기도의 열매는 12단계 성경공부에 대예배실을 가득 채운 첫날(3/5, 수) 성도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기와 중보기도 교육에 참석한 성도(3/6, 목)들의 표정과 열기에서 읽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주님의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희숙 권사(7-4)

아버지학교를 통한 축복



할렐루야!

강남7기 아버지 학교를 우리교회에서 2008년 1월 13일 개설 하여 2월17일 은혜롭

게 종료되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외침이 1월의 엄동설한 주님의교회를 뜨겁게 하고 있었다.

이번 아버지학교 개설을 위해 2007년 11월 중 진행자 박중순집사 개설팀장 임강식집사가 선임되어 개설팀 각과트의 구성 및 계획이 추진되고 가정사역팀 모두가 참여 하여 일사분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65일중 14회의 주중 및 주차 모임에 기도로 식당봉사로 총무로 서기로 열심히 섬겨주신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사역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모두가 천사 그대로였다. 형제 자매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사역이지만 만날때면 항상 기쁘고 반가워 허경하며 “사랑 합니다, 축복 합니다”를 연발 한다

이번 우리교회에서 개설했던 강남 7기 아버지학교에 120분의 지원자를 목표하였으나 180여분이 지원하셔서 160분이 등록하였고 145분이 수료하였다.

근간에 보기 드문 최대의 지원자가모여 폭포수 같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 중 우리교회 집사님은 22분이 수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15분의 지원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박원호 담임목사님 축복기도를 받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번 부부사역을 통하여 부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간증과 강의시 지원자 아버지의 참회 눈물에 함께 우는 “함즐함울”이니 함즐함울 뉴스가 아닌가?

부부가 함께하는 봉사에 교회생활이 즐거워지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리라 믿는다.

가정사역팀/임강식 집사 (2-5)

표준어

오늘은 우리가 흔히 틀리기 쉬운 맞춤법 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줄게.(O)
내가 만들어 줄께.(X)

설명 '-(으)르게, '-(으)르께' 등은 예사소리로 적어야 합니다.

일찍이(O)
일찌기(X)

설명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 '해죽이, 더욱이, 곰곰이, 생긋이' 등이 그 예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 23

통 권 _ 제 225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3월 23일

함즐함울

www.pcltv.org

부활절에 드리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내가 살아 있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나로 하여금 나쁜 버릇과 습관을
이기에 도와주소서

나를 사악한 생각과 행동에서 구하여 주소서
나의 임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빛을 주시며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날이 셀 때마다
나로 좀 순결하고
좀 더 기록되게 도와주소서

나로 당신을 충실히 섬기며
신뢰로서 섬기게 하소서

당신이 나의 가정을 찾으실 때
우리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은이: 오그 만디노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



특송하는 교우들 모습

2008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빌2:5) 라는 주제로 서울장신대 교수인 김 세광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많은 성도님들은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회망, 승리, 감사, 사랑과 정의, 고난

의 신비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난의 십자가 다음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편집부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부활절축하메시지	3면
믿음학습을 끝내면서_박현욱	3면
중보기도팀 수련회_이희숙	4면



거룩한 기쁨

누가복음 1:46-55

나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찬송합니까? 과연 나는 나의 비천함을 기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을 추구합니까? 힘과 성공을 추구합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 땅에 비천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 복음의 본문은 "마리아의 찬미"라는 제목이 붙여진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주를 기뻐합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찬양이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기쁨이라고 부쳤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기쁨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갖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은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송했습니까? 당연히 다가오는 생각은 비천한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아 이제 나를 비천함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난의 길을 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걸어간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수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얼마나 조롱받았습니까?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다고,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애굽으로 피난갔습니다. 애굽에서 피난민으로 여러 해를 살다가 나사렛 동네로 왔습니다. 나사렛에서의 삶도 부유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목수 일을 이어 받아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소는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메달려서 "목마르다!"라고 절규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삶을 우리는 결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거룩한 기쁨에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축복들이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송한 것은 이제 비천함에서 벗어나 권세를 얻었고 재물을 얻었고 성공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만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아보셨다는 그 사실에 그 무엇보다 기뻐하며 찬송할 일

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비천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보살피십니다.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을 보살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입은 마리아는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은 놀랍게도 모두가 비천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도 말쑥했습니다. 비천한 자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는 어떠합니까? 비록 왕궁에서 자랐지만, 훗날에 미디언 광야에서 양떼를 먹였습니다. 어느 듯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민족입니다. 게다가, 한때 노예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멸시 받던 사람들, 성전세 조차 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매일 매일 근근히 하루 하루를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으로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비천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의 삶에는 비천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말한 것은 결코 예외적인 사건은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건

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비천한 자를 쓰십니다. 영광의 신앙은 성공과 권세와 출세를 구하는 신앙이라면 십자가의 신앙은 세상의 비천한 생명을 향하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고통하는 자를 향하는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비천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비천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할 지라도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지난 날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찬송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이는 비하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비천함은 겸손함의 상징이요 고귀함의 상징입니다.

이제 왜 마리아가 비천함을 기뻐하며 찬양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함을 잊지 말자

여러분의 비천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축복들을 비천한 생명들을 돌보는데 사용하십시오. 비천함을 기억함이 은총의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진리도, 영생도 알지 못한 채 돈, 권세, 지식의 노예가 되고 가장 비천하게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들을 비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비천함을 잊지 마십시오. 수난 절기는 주님이 낮은 자로,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자들을 높이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비천함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남성찬양대 창단예배



주님의교회 남성찬양대 창단예배가 3월13일(목) 오후7시 단원 42명 참석하에 제3집회실에서 드려졌다.

1,2,3,4부 찬양대에 이어 창단된 남성찬양대는 우선 연 4회 있을 세례예식 때 예배의 찬양을 맡게 된다.

이날 창단예배에서 박원호 담임목사는 "남성찬양대의 역할에 큰기대를 건다며 세례예식뿐 아니라 앞으로 대내외로 활동영역을 넓힐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었다.

앞으로 남성찬양대의 지휘는 권덕원

집사가 맡고 엄성희 집사가 반주를 할 예정이다.

찬양대 가입을 원하는 분은 찬양대장 박동수 안수집사(010-7140-3095)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형섭 기자

Resurrection Day

부활절에 드리는 부활의 메시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4-5

라파엘로
1483~1520
부활



부활축하문자

지난 사순절 주간, 본보는 질곡을 통과하는 고통을 잊고 부활의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 부활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을 상상하고 근신하는 성도님에게 미리 부활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여기 조심조심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축하메시지를 옮긴다.

📶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문순희 5-18

📶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부활을 정말 축하드려요 항상 그 사랑에 감사하며 실천할게요 이세호
010-9968-****

📶

부활의 주안에서 십자가의 소망을 품고 살게하시
김낙균
016-435-****

📶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우리는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절 먼저 선택해주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경숙011-9924-****

📶

죄사하여 주기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011-584-****

📶

고난주간 기도로 준비하시어 부활에 축복 받으시기를 기도 합니다

배익환 8-1

📶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세상이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고한규 3-20

📶

기분 좋아지는 은혜 잠시 느끼며

이은희4-1

📶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목숨으로 죽음에서 구해 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가슴에 저미어옵니다.

김양재(4-6)

📶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의 더욱 감사하는 한주 되세요

한정섭 4-16

📶

부활, 주님을 갈망하며 나의 온 마음, 전부를 드리게 하소서

황남호 8-11

📶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세상 것을 조금 절제 하면서 살아갑니다
김성욱
010-2902-****

📶

예수님의 사랑 안깁니다. 할렐루야

손치아 4-1

📶

부활의 주님의 품안에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미수4-16

📶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사랑을 다시한번 깨닫을 수 있도록

최영숙8-11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보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 있음을 고백하며... ♥남은 생애도 순종하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 뭉!!! 생명과 영생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활을 맞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으니 부활 신앙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주간이 되시길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 싶어요. ♥연약한 나를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수난을 생각하며 나의 때론 영혼이 맑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원망이 변하여 감사하게 하시길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 감사. ♥부활의 은혜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짐을 감사드립니다.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부활의 소망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평화 ♥주님을 바라는 맑은 눈과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을 믿지않는 이웃 에 전파하게 하여 주소서 ♥축복만 추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죄인 살리려 오신 주님 믿음 없던 저희에게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심을 감사하오며 축하합니다. ♥날 위하여 울지말고 너희와 너희자녀를 위해 올라던 주님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 부활절 설교만 들으면 눈물콧물 흘리는 울보성도

